

# 부모에게 받은 몸 회향함이 절실한 효도

### 불화장 석정 스님, 사후 시신기증 서약... 상좌들도 한마음으로 동참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83)이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스님은 속가 그림방인 선주산방(先主山房)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장기기증 서약식을 8월 25일 가졌다. 이날 스님은 뇌사 시 장기기증은 물론 사후 장기, 안구(각막), 조직, 시신을 모두 기증할 것을 약속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에 서명했다.

석정 스님은 “나는 부모 봉양도 못하고 출가한 불효자라 부모에게서 받은 소중한 내 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돌아가는 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효도라고 생각해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정 스님에게 못다한 효도는 평생의 죄스러움으로 가슴에 남아있다. 스님은 불화를 그리게 된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하지만 현생의 세 가지 인연이 있었다. 첫째는 빼어난 금강산의 정기, 둘째는 숙명여고 출신의 신여성 어머니, 셋째는 아버지 석두 스님이다. 아버지 석두 스님은 금강산 도인으로 불리는 당대의 선지식이었다. 지금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에서 태어나 금강산 신계사에서 자란 석정 스님은 어릴 적부터 불화를 보며 그림을 그렸다. 놀이 삼아 그리던 부처님 그림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발견한 모친은 천부적인 불모가 될 것을 예감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다. 어린 석정 스님은 점차 불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13세에 출가했다.

“경전에서든 터럭 하나, 피 한 방울, 뼈 한 조각이라도 남을 위해 베푸는 기증은 가장 숭고한 보시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나는 죽고 없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몸을 보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게 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석정 스님은 특히 이날 서약식에서 의학 용 시신 기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스님은 “우리나라 의대생들이 공부할 하는 데 필요한 실험용 시신을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며 “죽은 후 아무리 장례식을 잘 치러도 결국 태우거나 땅에 묻히기 때문에 의학 발전을 위해 보시하는 것은 아름다운 회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후학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는 불화에 대한 스님의 천부적 소질을 어릴적부터 발견하고 이끌어준 스승 일섭 스님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한다. 출가한 이후에도 그림에 심취해 있는 걸 탐탁찮게 여긴 은사스님은 “화원(畫員)이 되는 것은 승려의 길로서는 옳지 않다”며 전생의 업 탓으로 업을 녹이면 수행정진 할 수 있으니 ‘준제진언’을 외는 기도를 권

했을 정도다.

그러나 석정 스님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결국 송광사 사천왕상 보결불사로 와 있던 당대 최고의 불모 일섭 스님의 제자로 발탁돼 화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듬해 14세의 나이에 스승으로부터 불모로 인가받아 독립했다. 첫 작품으로 상주 남장사 관음전 관음좌상을 조성하고, 전국의 많은 절에서 불상을 조성하고 불화를 그리면서 전통화맥을 계승하고 있다.

14세의 어린 나이로 불화세계에 입문해 일찍부터 불모로 역량을 인정받은 후 평생 불화작업에만 정진해 온 스님에게 불화는 수행의 한 방편이었다. 불화로서 성불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통불화의 계승을 위해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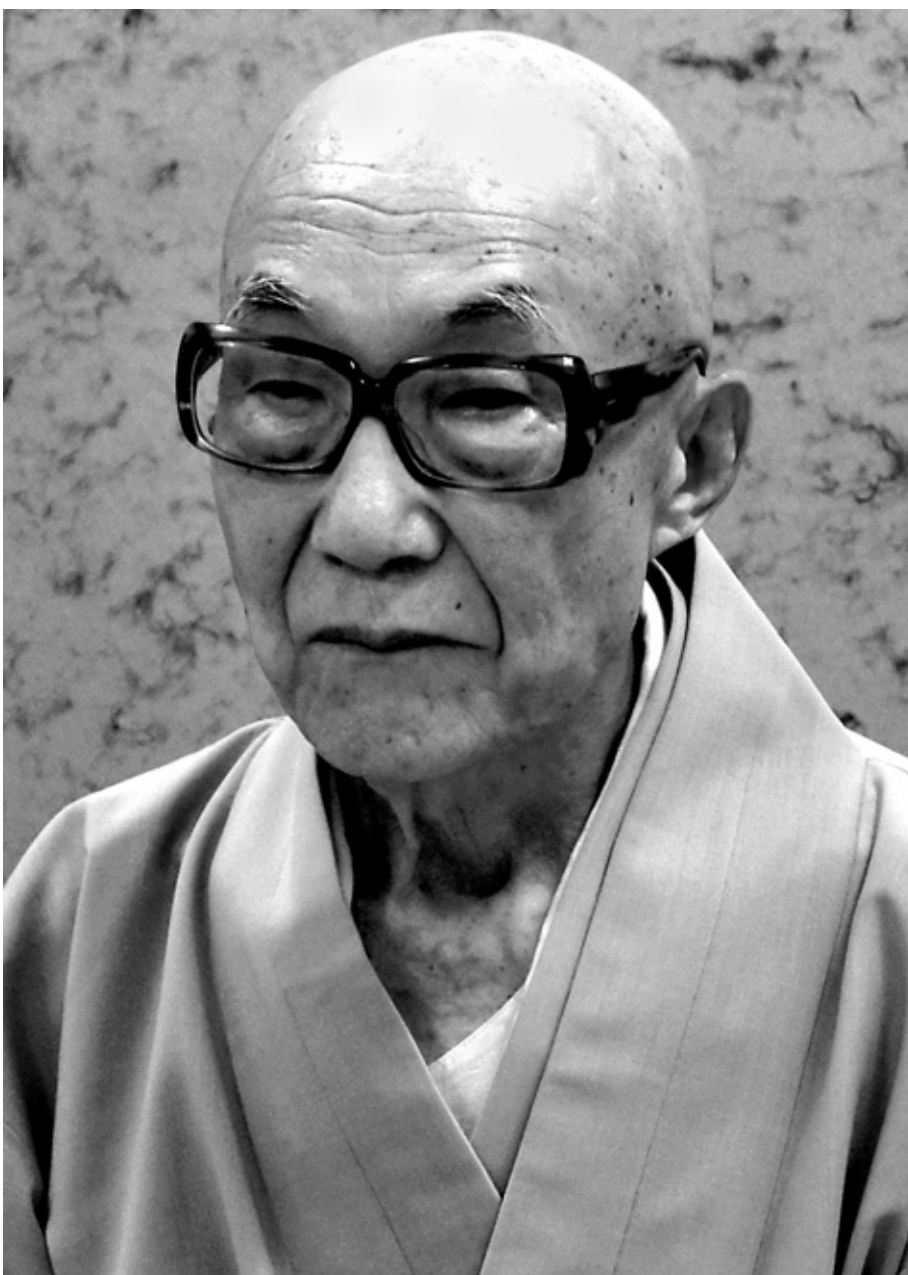
석정 스님은 2007년 4월 전국 사찰과 박물관의 불화 수전점을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4권을 완간했다. 20여년에 걸친 대작 불사였다. 이 책에는 조계종 24교구본사 등 476개 사찰과 14개 박물관에 소장된 3156

**중요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기증 13세 출가, 14세 불모 역랑 인중 수행 방편으로 불화 정진한 선지식**

점의 불화가 수록돼 있다. 귀중한 전통문화재인 불화의 훼손, 유실을 막고 이미 훼손된 불화의 보수는 물론 지도를 통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스님은 “불화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그리고 경전에 나오는 여러 보살들과 수호 신장들을 그린 그림으로, 형상만 담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표출해야 한다”며 “불화를 그리는 장인인 불화장은 불교 수행에 깊은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제 몫을 해낼 수 없으니 훌륭한 스승의 지도에 따라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기기증 서약식에서는 석정 스님의 뜻을 받은 20여 명의 제자가 함께 서약에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상좌인 선화가 수안 스님(통도사 총서암 주석), 성보문화재단연구원장 범하 스님, 부산 금강사 주지 혜성 스님, 영도 불광사 주지 혜광 스님, 정평선원 무현 스님, 통도사 승현 스님 및 신도 13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석정 스님은 불화보수 및 전승 발전의 큰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서명했다.

범하 스님은 “육신을 보시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회향인지 새삼 되새겨 스님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생명나눔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주산방 입구에는 ‘잡화장엄범성동거도량(雜華莊嚴凡聖同居度量)’이란 작은 현판이 걸려있다. 안 들어가는 것 없이 모든 게 다 있다는 ‘잡화장엄’과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함께 한다는 ‘범성동거’는 바로 불화의 세계를 요약한 것으로, 온 세상이 두루 온전한 것 즉, (화엄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화엄경)에 기초한 ‘53선지식’은 석정 스님의 창의적 그림으로 손꼽히며 현재 부산불교회관에 봉안돼 있다. 그 밖에도 송광사, 통도사, 대원사 등 전국에 산재한 스님의 불화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단, 13세 때 작품은 경북 선산 원각사에 아직 남아있다.

“죽을 때 몸은 죽더라도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보시 중 제일가는 보시입니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을 서약해주시길 바랍니다”

**석정 스님은...** 1928년 금강산 신계사 사하촌 출생. 1940년 송광사에서 석두 스님을 은사로, 대우 스님을 계사로 수계. 1941년 일섭 스님으로부터 화백 전수 불모가 됐다. 1947년 가행정진, 선화일여 경지 체득. 200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畫匠) 기능보유자 지정. 국내외전 다수 출품. 저서 <선주여묵> (한국의 불화) <석정시문집> (석정 그림집) 등이 있다.

## 비구니스님 노후복지 문제 해결책 찾자

**부산 옥선사 주지 동성 스님 한국불교연화조계종 비구니회장**



창종 1주년을 맞는 한국불교연화조계종 내 비구니회장으로 동성 스님(옥선사 주지·사진)이 내정됐다.

한국불교연화조계종은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가진 비구니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서 동성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9월 2일 추대했다.

스님은 “모든 종단에 비구회와 비구니회가 있지만, 우리 종단 비구니회에서는 비구니들의 노후복지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형편의 스님들이 한데 모여 수행정진하며 삶을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를 임기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꾸러질 비구니회는 종단의 종지 중풍과 수행풍토 진작 및 계승 발전을 목표로 비구니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 사찰별 신도관리 및 교육시스템 구축과 장학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동성 스님은 옥선사가 위치한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일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10여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학금 전달, 독거노인 쌀과 생필품 지원, 장애인 가정 반찬배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성 스님은 “그동안 작은 도심포교당에서 해온 봉사활동들을 비구니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투명성도 이룰 수 있어 열심히 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세세생생 부처님법 만나 행복하기를

**진관 스님, 부산 문수사에서 '소신공양' 사미니 49재 회향**



문수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소신공양한 환속한 명문 사미니의 49재 막제 및 회향 법회가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 대웅보전에서 8월 31일 엄수됐다.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다음 생에는 분명 부산에서 선량한 어머니의 품안에 안락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발원했다. 이어 스님은 또 “문수 스님의 정신을 실천하려 했던 그의 서원은 미륵의 상생법을 실천한 것이라 믿으며 분명 부처님을 친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문은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한 경북 군위 지보사(주지 원범)의 부모 앞에서 7월 14일 새벽 6시께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했다.

유서에는 “문수 스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니 보내주시는 분은 불교인권위원회의 진관 스님이면 좋겠다”며 “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의 아픔이 어서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비구니계를 받기 전 환속한 사미니로, 조계종 승적을 버린 후에도 머리를 기르지 않고 사실상 출가수행자로 계속 생활해왔다.

진관 스님은 법문에 앞서 한동안 조계

진관 스님이 49재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사 일주문에서 홀로 기도하던 사미니 명문과의 일화를 전했다. 스님은 “생전 매일 고인이 된 문수 스님을 기리며 기도하던 안타까운 한 사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까슬하던 머리맡을 보고 행자인줄 알고 범명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환속했지만 항상 정진하며 승려로서의 삶을 살던 이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법화경)에 상불경보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성불하려던 보살처럼 그는 우리 시대에 태어난 법화행자였다”며 “연꽃처럼 살다가 사미니의 뜻을 후대에 이차드곤 같은 성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부처님의 법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염원하며 그의 실천의 행을 기리자”고 설했다. 스님은 명문 사미니의 49재를 맞아 (화중련)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해 그 정신을 기렸다. (화중련)은 불 가운데 연꽃을 뜻한다.

박지원 기자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 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문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졸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다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여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

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침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침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전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매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